

## 신장이식 후 장기간 생존한 70세 여자환자에서 갑작스런 이식신 기능저하

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

최 미 선

**증례 :** 70세 여자환자로 전신쇠약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. 과거력상 1990년 9월 21일 생체 신이식 후 면역 억제제로 cyclosporine, steroid, azathioprine 투여를 시작하였으며 이식 3년째 부터는 cyclosporine을 단독으로 투여받으면서 혈청 크레아티닌치는 0.8-1.2 mg/dL사이로 유지하였다. 이식 후 15년이 경과하면서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1.4-1.8 mg/dL로 상승 되었으나 이식신 생검은 시행하지 않았다. 이식 16년째 10개월째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2.0 mg/dL로 증가하면서 체중감소가 동반되어 외래에서 간헐적으로 생리식염수를 주사하였으나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3.0 mg/dL 오히려 증가되었다. 이식 17년째 환자는 지속되는 체중감소와 이식신 기능 부전으로 입원하여 악성 종양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수액치료 후 퇴원하였다.

이식 17년 3개월째 환자는 전신 쇠약감이 지속되고,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5.5 mg/dL로 이식신 기능이 악화되는 소견이 있어 다시 입원하였다. 입원 당시 환자는 cyclosporine A 100 mg을 투여받고 있었다. 입원 후 대사성 산증이 동반된 소견이 있어 혈액투석 치료를 1회 시행하였으며 입원 3일째 이식신 생검을 시행하였다.

**이학적 소견 :** 생체 징후는 혈압 130/80 mmHg, 맥박 75회/분, 호흡 20회/분, 체온 36.5°C로 안정적 이었다. 결막은 창백하였고 흉부 및 심음 청진상 특별한 이상 없었고 복부는 외관과 장음이 정상 소견을 보였고 임파선이나 간, 비장 비대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. 하지 부종도 관찰되지 않았다.

**검사실 소견 :** 말초 혈액 검사상 혈색소 9.9 g/dL, 백혈구 10,070/mm<sup>3</sup>, 혈소판 219,000/mm<sup>3</sup> 이었으며 소변 검사상 단백뇨 75 mg, 적혈구는 0-1/HPF 이었고, 24시간 총 단백은 0.4 g 이었다. 혈청 총 단백은 6.6 g/dL, 알부민 3.1 g/dL, 혈청 칼슘 7.9 mg/dL, 인 4.8 mg/dL 이었고 Na/K 142/5.2 mmol/L, BUN/Cr 은 119/6.0 mg/dL 이었다. 동맥혈 검사상 pH 7.225, pCO<sub>2</sub> 15, pO<sub>2</sub> 93, HCO<sub>3</sub> 6, satO<sub>2</sub> 97.1%였다. 흉부 X선 검사에서는 특이소견 없었고 이식 신 초음파에서는 이식 신의 피질 예코 및 RI가 증가되어 있었다.